

큰 변화 맞은 비스트 세 번째 정규앨범 발표

장현승 탈퇴 따라 다섯 명으로 활동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나,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 같은 것. 진부하지만 그만큼 맞는 말이다.

최근 세 번째 정규앨범 '하이라이트(Highlight)'로 돌아온 지금의 그룹 비스트에게는 더욱 그럴 거다.

2009년 데뷔해 어느덧 8년 차 중견 아이돌 그룹이 됐다. 7년간 나름대로 '무사고로 별 탈 없이 팀 활동을 꾸려왔지만 올해 멤버 장현승이 탈퇴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멤버들의 군대와 올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문제로 흘러보낼 수 없는 이슈다.

그러나 온갖 상황이 비스트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만난 이들은, 오히려 어떤 중심을 잡고 단단히 모여 있는 듯 했다.

다섯 명으로 활동하는 건 처음이다. 기분이 어떤지?

"솔직히 아직 좀 어색해요. 여섯 명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다섯 명이 된 건 몇 달도 안 됐잖아요. 그 어색함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느끼도록 해야죠"(윤두준)

"좋은 점이 있다면, 밥값이 조금 절약되고 이동할 때 좀 넉넉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정도 아닐까요? 현승이가 보컬이기도 했고 춤을 잘 추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몫을 나눠서 그런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되게 비어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앨범은 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좀 더 소중하고 잘 알면 좋겠습니."

전 멤버 장현승과의 결별 과정은 어땠나?

"(탈퇴가) 전적으로 현승이의 선택민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같이 의견을 모았고, 여섯 명이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서로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름다울 거로 생각했어요. 음악적인 성향 문제로 다른 걸 인정하고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다섯 명도 현승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양요섭)

선 공개곡 '버터플라이나 타이틀 곡 '리본' 등이 장현승과 결별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의도를 담고 작업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작업을 할 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걸 우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게 상황을 열어둔 것뿐이에요. 사실 '버터플라이'는 나온 지 1년도 남은 노래이기도 하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윤준형)

데뷔 초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체제에서 멤버 윤준형이 프로듀싱하는 체제로 완벽하게 지리 잡은 것 같다. 감성적이



고 차분한 비스트만의 발라드로, 보이그룹으로서의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다.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는 쇼크(Shock)나 '숨' 같은 강한 퍼포먼스를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건 비스트의 서정적인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손동운)

"확실히 음악이 차분해지고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못 해서 안 한다면, 지금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만의 감성을 보여드리는데 비스트의 강점이 없을까 생각했어요"(윤준형)

소속사와의 재계약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저희가 복잡하거나 심각한 얘기하는 걸 좀 피하는 편이에요. 재계약 시점이 가까이 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의외라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앨범 활동부터 잘 마치고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든 어디에 있든, 어쨌든 저희 비스트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양요섭)

그렇다면 군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우선순위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의 저희 앨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군대는 나중에 시기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기광)

/김민근기자

JTBC 금토드라마 '마녀보감' 아시아 8개국 수출

JTBC 금토드라마 '마녀보감'(극본 양혁문·노선재, 연출 조현탁·심나연)이 아시아 8개국으로 수출됐다.

지난 8일 JTBC에 따르면 '마녀보감'은 일본·홍콩·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태국 등 8개국에 판매됐다.

JTBC 측은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앞둔 국가도 있어 판매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종 채널로 '마녀보감'을 접한 외국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마녀보감'은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비키(VIKI)' 2분기 한국 드라마 시구과 판타지 장르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한국드라마 전체 순위에서는 5위다.

제작진은 "한국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설화적인 소재가 오히려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려는 노력이 외국에서도 통하고 있어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이민호 '바운티 헌터스' 국내 특별 시사회 열어

배우 이민호(29)가 한국 팬을 위해 현재 중국에서 상영 중인 한·중 합작 영화 '바운티 헌터스'의 국내 특별 시사회를 열었다고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밝혔다.

이민호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국극장 '바운티 헌터스' 비밀 사냥꾼 모임 이벤트를 통해 이민호의 초청을 받은 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바운티 헌터스' 시사회를 열었다.

이민호는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무대에 올라 "바운티 헌터스"와 함께 국내 작품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국 작품으로 먼저 찾아볼게 됐다"며 "결과가 좋아 좋고, 감사하다. 드라마 잘 준비해서 연말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중국에서 개봉한 '바운티 헌터스'는 개봉 9새 만에 누적 매출액 1억7766억원(약 307억원)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근기자

유로 2016 프랑스-포르투갈 결승 맞대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드리드 골잡이' 호날두·그리즈만 격돌 관전 포인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마드리드 골잡이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결승전에서 격돌한다.

프랑스는 8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유로2016 준결승전에서 양부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멀티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앞서 포르투갈은 웨일스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16년 만에 통산 3번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와 첫 우승에 도전하는 포르투갈의 결승전은 오는 11일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다. 결승전 최고 관전포인트는 단연 골잡이 대결이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프랑스의 그리즈만이 맞붙는다.

둘은 내란히 준결승에서 골을 터뜨리며 결승으로 이끌어 패조의 컨디션이다.

공교롭게 호날두와 그리즈만은 각각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마드리드를 연고로 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다.

'마드리드 데비로' 불리는 라이벌 관계

가 국가대항전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2골을 터뜨린 그리즈만은 6골로 대회 득점부문 단독 1위에 올랐다.

호날두가 3골로 공동 2위. 3골 차이로 득점왕 등극에 있어 그리즈만이 유리하다.

그러나 소속팀에서 달랐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35골, 그리즈만은 22골을 넣었다.

무엇보다 지난 5월29일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결승전에서 회비가 갈렸다.

/김민근기자

호날두와 그리즈만은 당시 선발로 출전해 연장까지 120분을 모두 소화했다.

둘 다 골을 넣지 못했지만 호날두는 결정적인 승부차기 성공으로 팀에 우승을 안겼고, 그리즈만은 후반 2분 페널티킥 실축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이 경기는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 끝에 레알 마드리드가 5-3으로 승리했다.

우승을 확정짓는 승부차기의 5번째 키커가 호날두였다.

그리즈만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의 설욕과 득점왕, 우승까지 세 마리 토끼를 노린다.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하나인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첫 유로 우승을 이끌며 국가 대표팀에서의 무관을 씻겠다는 각오다.

이기는 쪽이 대회 최우수선수(MVP)도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

/김민근기자

그룹 러쉬, 더러쉬로 이름 바꾸고 중국 시장 진출

여성 보컬 그룹 '러쉬(제이미·미니·사라)'가 '더러쉬'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 음악 시장에 진출한다.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측은 최근 "러쉬가 그룹 이름을 더러쉬로 새롭게 바꾸면서 마음가짐을 달리했다"며 "이와 함께 러쉬는 중국의 국제문화미디어유한회사와 함께 이달 말 중국에 진출한다"고 전했다.

더러쉬는 "한국을 넘어 중국에 진출하게 돼 정말 기쁘다. 한국 가수라는 이름에 막힐지 않도록 많은 연습을 거듭하고 좋은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리더 제이미는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배우 박신혜, 박세영과 '슈퍼스타K' 박정현 보컬트레이너로 알려졌다. 영화 '파수꾼'의 OST '선물'과 이승환밴드 박진영 브라운아이드스쿨, 김연우, 안재욱, 브라운 아이즈 걸스 등의 코러스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